광주신세계, 출산 증가 추세 발맞춰 '베이비 페어' 연다

개점 30주년 기념…국내·외 인기 프리미엄 아동 브랜드 32개 참여

17일까지…최대 73% 할인·사은품 증정·포인트 리워드 적립 혜택

광주신세계가 현지법인 30주년을 맞아 국내·외 인기 브랜드의 아동 용품을 만나볼 수 있는 '베이비 페어'를 진행한다.

13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다양한 아동 브랜드가 참여하는 베이비 페어 행사를 열고, 증정 및 적립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신세계가 올해 들어 출생 및 혼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 수요에 발맞춰 코베 베이비페어와 함께 추진하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출생아 수는 10만 6048명으로 전년 대비 6.9% 늘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출생아 수가 2만 717명으로 전년 동월(1만 9059명)보다 8.7% 증가하며 1991년 이후 34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광주신세계는 이 같은 출생아 증가 추세와 함께 과거보다 아이를 더욱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프리미엄 아동 장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만큼 고객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베이비 페어 행사에는 국내·외 인기 프리미엄 아동 브랜드 32개가 참여하는데, 대표적으로 '브라이텍스', '베이비 브레짜', '베베루나' 등이 눈에 띈다.

글로벌 카시트 브랜드인 '브라이텍스'의 대표상품으로는 '듀얼픽스 프로 스타일 신생아 카시트'가 있다. 브라이텍스는 독일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카시트에 일체형 와이드 스핀 디스크를 사용해 시트 흔들림을 줄이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현대적인 디자인에 프리미엄 통기성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젊은 부모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베이비 브레짜'는 버튼 하나로 분유 제조가 가능해 육아 필수 아이템으로 꼽힌다.

영국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로 유명한 '에그'는 '에그 스카이 유모차'를 선보인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스카이 유모차는 항공기 내부로도 반입할 수 있는 6.5kg의 크기로 휴대성이 우수하다.

'두리'는 이번 행사에서 '트롤리 기저귀 갈이대'를 내놨다. 트롤리 기저귀 갈이대는 유아 기저귀 교체를 위한 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100kg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

광주신세계는 행사기간동안 제품 할인과 더불어 사은품 증정, 포인트 리워드 적립 등 혜택도 제공한다.

'베베루나' 매장이 최대 73% 할인에 나서는 등 브랜드별로 최소 10%부터 최대 73%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 5만원 이상 구매하면 리유저블백과 랜덤선물 1종을 증정하고, 구매 금액대별로 30·60·100만원 이상 구매시 전체 금액의 7% 신백리워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전국 신세계백화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개점 30주년을 맞아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베이비 페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광주신세계를 찾아 국내·외 인기 아동용품 브랜드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신세계 본관 6층 매장에서 직원이 브라이텍스 신생아 카시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을옷 신상품 선보여

롯데백화점 광주점 3층 타임 매장에서 직원들이 2025년 가을 및 겨울(F/W)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3일 브랜드별로 50~80%의 품목을 가을 옷으로 교체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aT, 31일까지 'K-푸드 인식 제고 캠페인'

저가·위조·모방품 등 확산 대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소비자 참여형 'K-푸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에서 K-푸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가·저품질 위조·모방품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해외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특정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 또는 제품명을 사용한 모방품, 한글 표기 등으로 한국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현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여행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aT는 중국·베트남·태국어 안내 콘텐츠 등을 통해 현지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자는 8월 14일 오픈되는 캠페인 홈페이지(www.kati.net/realkfood.do)에 해당 제품의 사진과 제품명, 유통매장, 발견일시, 가격, 모방 의심 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캠페인이 종료된 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국내 또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K-푸드 상품권을 증정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분기 대형마트 실적 '이마트' 웃고 '롯데마트' 울었다

영업이익 14배 vs 영업손실

올 2분기 대형마트 업계 실적에서 업계 '쌍두마차'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모두 실적 확대가 예상됐지만, 이마트는 지난 동기대비 상반기 영업이익이 14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롯데마트는 소비 부진 및 본사 차원의 사업 이관 등 부담이 확대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 2분기 흑자로 전환됐다. 이마트의 2분기 매출은 연결 기준 7조 390억원, 영업이익은 21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1809억원으로 전년 동기(125억원) 대비 1684억원(1351.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이마트는 별도 기준 영업이익 156억원으로 전년 210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은 13.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8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마트 실적이 개선된 것은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상황에서, 올해 들어 이마트만의 '고레잇 페스타' 등 상시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매출 증대를 견인했고, 신세계푸드 등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올 상반기 내내 실적이 부진했다. 지난 8일 롯데쇼핑 공시에 따르면 롯데마트·슈퍼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45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130억원 손실보다도 3배 이상 적자폭이 확대됐다.

롯데마트의 실적 부진은 수요 둔화 및 e그로서리 시스템 이관에 투입된 비용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해 e그로서리 사업을 롯데온으로부터 이관받은 뒤 영업 적자폭이 확대된 바 있다./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 /임예솔 인턴기자 imimys0222@gmail.com

홈플러스 전사적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

순차적 폐점·무급휴직 등 시행

홈플러스는 13일 공식 발표를 통해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5개월이 지났지만,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자금 압박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홈플러스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등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회생절차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대형 납품업체들은 정산주기 단축, 거래한도 축소, 선지급, 신규 보증금 예치 요구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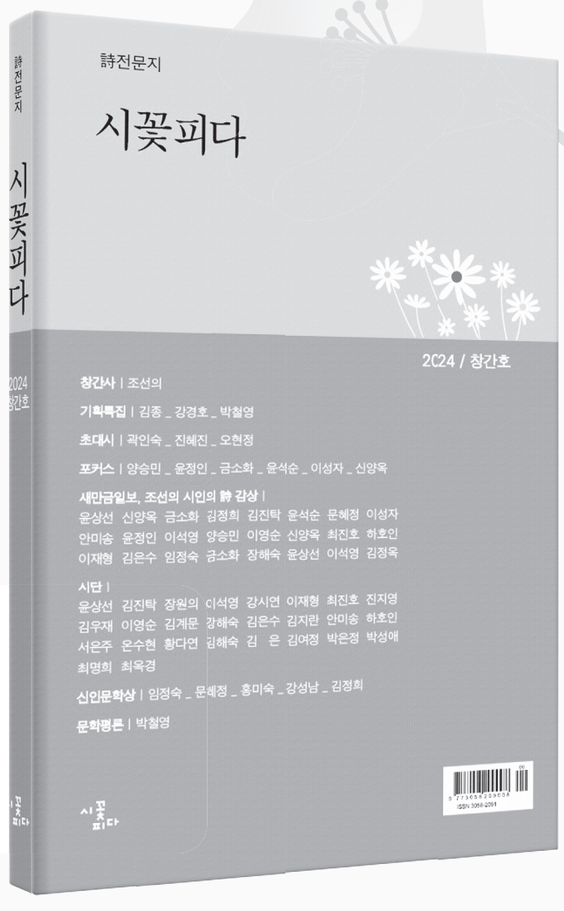
또 지난 7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형마트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최근 홈플러스의 매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된 점도 악재다. 홈플러스와 같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외부 차입이 어렵다. 외부 차입이 막힌 상황에서 매출마저 감소하면서 자금 유동성 압박도 커졌다.

홈플러스는 향후 인가 전 M&A가 성사될 때까지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회생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한 순차적 폐점 진행,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제도 시행,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조치 등의 자구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